

바빠 기도 쫓아 다니다 보면 극락 지나쳐 버려요

대도행 배차년 보살 (2)

“제발 절에 와서 불상한테 엎드려 빌기만 하지 말고, 공부하는 은영이 잘 돌보고 처사님 공양 잘 하세요” 법정 스님은 배차년 선생(80)을 보기만 하면 타 일했다.

“자꾸 기도를 쫓아다니니까 오죽하면 스님이 보살님처럼 그렇게 바빠 다니면 극락을 지나쳐버린다면, 적당하게 다니다가 극락이 보이면 안으로 싹 들어가지. 지나쳐 버리면 헛것이니 기도 그만 다니라고. 보살이 먼저 성불해서 가부좌 탁 들고 앉아 있으면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내가 얼마나 죽을 맛이겠느냐. 그러나 날 위해서라도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아이고. 날 주저앉히느라 스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절에 못지않게
자성사(自性寺)에도
환히 등 밝히도록 하십시오

...초파일에 여기저기 등을 밝히는 일은 잘 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다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도록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절에 못지않게 자성사(自性寺)에도 환히 밝히도록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은영이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군요. 은영이를 섬섬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그러우신 처사님께 문안 사되어주시고 착한 은영이한테도 안부 전해주시시오...
 4월 5일 산에서 승掌

“스님 말씀따라 우리 처사님이 부처예요. 부처. 결혼하고 만 11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별 소리를 해 싸도 끄덕도 안 해. ‘사람을 하나 들여서 애 낳았다고 당신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살겠나? 그렇다고 애 낳은 사람을 밀어내고 당신하고 살겠나?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진짜 귀한 딸이지요. 그런데도 만날 애만 집에 놔두고 기도한다고 쫓아다니니까, 스님이 제발 애를 돌보라고. 보기만 하면 그러셨어요. 영감님이 싫어하면 못 그랬을 텐데 ‘오전에 봉은사 갔다가 오후에 법련사 들러서 저녁 늦게 몇 시나 되어야 들어오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으면 재미없는 묵욕량에도 일곱 시간씩 앉아있기도 하는데, 그 재밌는데 가서 빨리 올 수 있겠느냐며 잘 놀다오라고. 그땐 통행금이 있을 때니까 통행금지에 걸리지만 양계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불일암에 오르내린지 그러저럭 세 해쯤 지나니 불일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님은 그이들을 불일권속이라고 불렀다. 찾는 이들이 늘어 나자 선생은 그 뒤로는 한 해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곤 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이 대학교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스님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좀 실컷 울려고 딸 데리고 내려 갔어요. 그때 마침 우리 집 처사가 집에 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딸이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취직이 되더라고요.”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스님은 은영이한테 “네가 시험이 되고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내 등쪽급 누가 대겠느냐? 한 해 쉬면서 재수 잘 하면 다른 사람이 2년이나 3년 한 공부를 앞지를 수 있다. 그러니 재수생활 잘 하라”고 하면서 “은영이 시험 잘 떨어졌다. 은영이 시험 잘 떨어졌다.”고 울적한 기분을 풀어주려는 마음에서 농을 건넸다. “스님 말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미 마음은 그게 아니라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위로받으러 갔다가 화만 실컷 내고 올라왔어요.”

공부할 때
책과 눈 거리를 알맞게
유지해야 한다

스님은 “은영아. 네가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밥이 저절로 넘어간다”며 은영이를 귀여워했다. 편지, 편지마다 아버지가 딸한테 당부하듯이 구구절절이었고, 선생에게 하는 편지에도 늘 은영이 안부를 잊지 않았다. “우리 딸은 스님한테 돈도 많이 얻어 썼어요. 불일암에 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은영아 방 좀 뒤야라’ 그러시고는 은영이가 걸레를 들고 가서 방을 닦으면 아이고 저 조막만한 손으로 닦으면 얼마나 닦겠느냐면서 책을 한권 주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집에 와서 펴 보면 책갈피에 돈이 들어있어요.”

은영에게
잘 쓴 편지 잘 받았다. ‘일순이’ 보다는 ‘삼순이’가 훨씬 좋다. 앞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좋은 거다. 요 며칠 동안은 날씨가 많이 풀려 봄이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 밭이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다람쥐도 엇그제부터 다나오고 있단다.

나는 음력 선달 그믐께부터 계속 찾아오는 방문객들 때문에 일에 크게 방해받고 있다. 이리다가는 더 깊고 험한 산골로 들어가야 할까 보다. 사람도 가끔 만나야 반갑지, 날마다 대어섯 사람씩을 대해야 하니 피곤하고 할 일을 못해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아무래도 이번 달은(2월) 그런 달인 모양이다. 한 달이 아무 일도 못한 채 휘딱 지나가 버린 것만 같다.

봄방학에 오고 싶어 했더니 무척 미안하다. 여름방학 때 차분한 마음으로 오너라. 은영이 다리를 좋아하는 모기들도 좋아할 거야.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더러는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 얼마한테 해달라고 해서 먹기도 하여라. 그리고 공부할 때 책과 눈 거리를 알맞게 유지하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눈은 한번 고장 나면 평생 고칠 수

없단다.
그럼 늘 건강하고 계속 ‘삼순이’가 되기를 바란다. 2월 26일 산에서 스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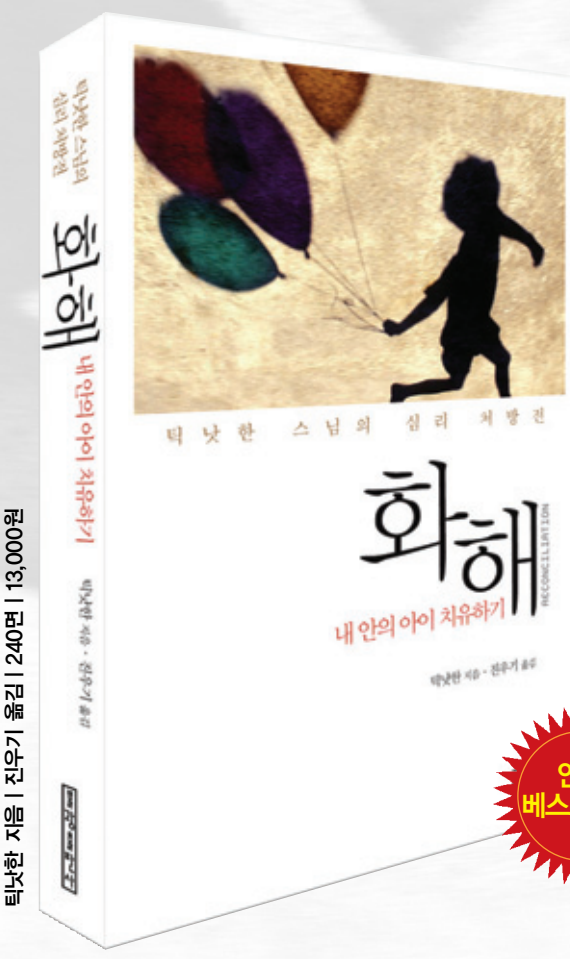
그 시절 스님이 어른들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세로쓰기인데, 은영에게 보낸 편지는 다 가로쓰기다. 어느 해 여름, 은영이와 함께 불일암을 찾은 선생이 방청소를 끝내고 잠시 덧버선을 벗고 다리 뻗고 쉬었다.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은영아, 아버지가 얼마 발가락에 매니큐어 바르는 것 좋아하시니?”하고 물었다. 은영이가 “아니요.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바르는데요.” “손가락 발가락도 다 숨을 쉬는데 그렇게 발라놓으면 숨이 막혀서 안 되지.”라고 한마디 했다. “그 뒤로 손가락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습디다. 진짜 나는 스님 말씀 듣고 법대로 살려고 원력 세우고 애써 살았어요.”

국수를 좋아하는 스님은 국수를 삶으면 부엌에서 밑에 있는 물가로 냄비를 들고 빨리 뛰어 내려가야 하니까, 보살님이 뛰다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당신이 물가로 뛰어 내려가 찰랑찰랑 씻다가 “보살, 보살!”하고 불렀다. “쫓아 내려가면 행군 국수사리를 손으로 한 움큼 쥐어 손바닥 위에 놔 주면서 빨리 먹어보래요. 국수는 이때가 가장 맛있다면, 한 번은 딸 여름방학 때 짜장면을 한다고 서울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함께 내려갔어요. 가방에 양파를 세 개 넣어 가지고 갔는데 찾으니가 없어요. 막 찾으니까 스님이 아, 그건 절간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빼놓았다면서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그때 스님이 새로 옷칠 한 발우에 담아 드셨는데 다 드신 뒤에 보니까 옷이 올라가 입술이 퐁퐁 부르트셨어요. 어찌나 우습던지. 거 보세요. 좀 식혀서 드셔야 할 텐데 빨리 잡숫자고 해서 그랬지 않느냐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야요. 그러시더라고.”

중생에게 매달리면 허망
관세음보살 정진을 하셨다니
참 잘 하셨습니다.
한결음 한결음 큰길로 다니면
진짜로 대도행 됩시다

大道行 보살님께
긴 편지 반가이 받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옛단골”을 찾아 묻지 않고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려 정진하셨다니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佛敎를 밖으로 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으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에게 매달리면 잘못되거나 허망한 일을 겪게 되지만, 관세음보살 같은 聖賢에게 歸依하면 항상 믿음직해서

한 해 동안 힘드셨죠?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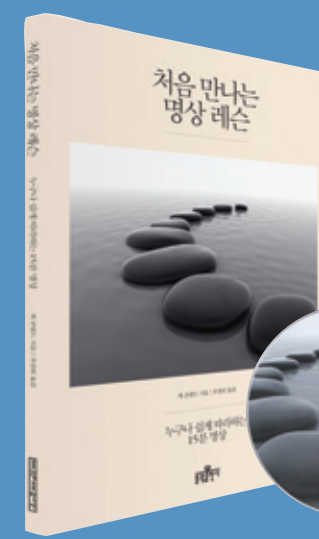


내 안의 다섯 살 아이에게 건네는 치유의 선물

- “책을 덮고 나면 내 속에도 있을 그 아이를 향해 말을 걸고 싶어진다. 미소를 보내고, 손을 잡아 주고 싶어진다. 괜찮다고, 이젠 다 괜찮다고, 그때의 너는 작고 상처받기 쉬웠지만, 지금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 조선일보
- “화해 상처를 치유하는 탁날한식 심리치방전으로, 상담심리거나 정신치료사들에게도 유용하게 읽힐 내용들이다.” - 문화일보
- “마음속 응어리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탁날한스님이 전하는 심리 처방전이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지혜와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한국경제

인문
베스트셀러

탁날한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안의 아이 치유하기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회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책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156면 | 12,000원 | 부록 : 명상유도 CD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스님이 들려 주는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10가지 방법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깨달은
생활을 위한 지혜

도법 지음 | 280면 | 13,800원

든든할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큰길로 다니도록 정진할 때 보살님은 진짜로 大道行이 되는 것입니다. 大道行이란 말은 곧 正法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남해에 다녀가실 때 우리 佛日庵에도 들르십시오.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욕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산에 오시면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신 <반야심경>을 해설해드리지요. '고찰단골' '햇단골'이 어디 있습니까. 동대문 시장도 아닌데. 부처님 법 가운데서도, 아무리 오래 절을 다녔어도 잘못 믿거나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햇단골'이고, 어제부터 불교를 믿더라도 빠르게 믿고 그대로 행하면 '묵은단골' (보살님 표현에 따르면 고찰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산에는 날마다 바람소리가 요란합니다. 처사님, 은영이 세 식구 다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월二十五일 合掌

'햇단골'이 많아 찾기가 조심스런 불일암 '고찰단골'인 선생이 어려움에 닦혔을 때 '불일암'을 찾지 않고 관세음보살 정진으로 평정을 찾았다는 이야기에 산에 들르면 <반야심경>을 해설해 주겠다는 점이 딱딱 담긴 화답편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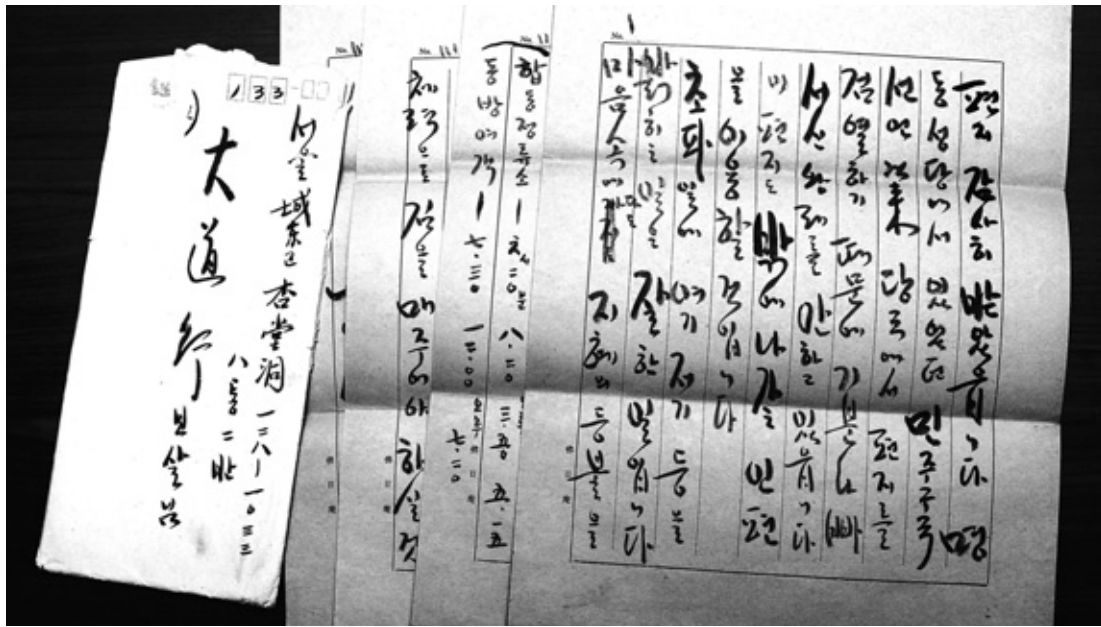
불일암을 찾지 않은 뒤에 어떻게 지냈을까? "어려도반들 하고 지금 조계종 중정 법정 스님이 사시던 김천 수도암修道庵엔 불었어. 내가 갈 적에는 수도암 불사가 중간중간 진행이 되어 아직 선방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 서울 사람들이 불어서 수도암 불사가 거의 완성을 볼 즈음, 스님들이 6년 결사를 한다고 해서 보살 한 분하고 내가 둘이 화주 보살을 했는데, 같이 하던 분은 중간에 가버리고 혼자 6년을 마쳤어. 거기 덩길 적에 우리 딸에 대학에 재수를 할 때라서 수도암 스님(법전)한테도 가서 사정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그때 법정 스님이 선생에게 이제 자랄한 집짓는 불사는 그만하고, 스님을 알선해 줄 테니 보살들 공부를 시키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선생은 회장 말지 말라고 했던 법정 스님 말씀이 떠올라 편지를 썼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회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몰랐더니 이젠 괜찮으면서 '사람방생' 하신다니 참 잘 하셨습니다"고 답을 주셨어. 아무 것도 모르는 천둥벼락소리처럼 불자 만드느라 법정 스님이 고생했어요. 내가 말도 잘 안 듣고 하도 고집을 세워 싸니까 한번은 아침 잡숫고 부처님 앞에 앉아서 가서 장삼을 수하고는 당신보고 절 세 자리 하래. 그래서 삼배를 하니까 <금강경>을 펴놓고 15편까지 해석을 해줬어. 뭘 알아야 그게 머리에 들어가지요. 그래도 그 인연공덕으로 아침마다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아파서 못 일어나면 누워서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복으로 이 좋은 법을 만나가지고 법정·서암·일타·법정·정화 스님 같은 큰스님들이 대도행 왔느냐고 반기는 대접을 받고 싶어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어깨 힘이 들어가요. 부산 올게가 하는 말이 '우리 형님 저 성질을 가지고 불자가 되지 않았으면 무엇이 되었을꼬?' 그러니까."

선생은 길상사 개원하고 처음엔 가지 않았어. 나 아니라도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불일암에서 스님 시봉을 좀 했다고 얼굴 내밀며 스님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님



1970년대 후반 불일암에서 찍은사진 (왼쪽부터) 대도행 보살, 법정 스님, 은허 스님, 현호 스님, 수련화 보살



법정 스님이 대도행 보살에게 보낸 편지

이 와서 계시는데 왜 안 가느냐고 보체는 이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서 면발치에서 법문만 듣고 그냥 오곤 했다.

"나이 일흔 다섯에 심장병, 당뇨가 한꺼번에 오더니만, 일흔 여덟이 되니까 무단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이래요. 수술도 하고 아프니까 한 해 동안 집에만 콕 틀어박혀 바깥나들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부산 사는 올케가 형님, 스님이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요. 그러저러 소문이 난 지가 한 해는 넘었는데 스님이 길상사에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갔어요. 면발치서 봐도 살이 다 빠지고 많이 수척했어요. 그래도 면데서만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2009년 4월 봄 법회, 스님은 전에 별 때보다 눈에 띄게 초췌했다. 법회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양을 하러 내려가는 스님을 보면서, 어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님을 꼭 봐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졌다. "살살 따라 내려가서 비빔밥을 한

그릇 얻어가지고 얼른 먹고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스님들이 나오는지 웅성웅성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려니까 어깨피를 두른 분들이 막아서면서 '보살님 오늘은 스님 친견 못합니다'고 막아서요." 마음을 다잡은 선생은 나는 오늘 세상없어도 스님을 친견해야 하니 막지 말라고 세계 나갔다. "얼추, 스님들이 다 나오고 나서야 스님이 나오세요. 쫓아가서 '스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동갑 보살 왔다'고 반가워하시면서 은영이 소식을 물어요. 스님 뒤를 바짝 따라 행지실로 올라가보니까 스님들이고 보살들이고 방에서 진을 치고 앉았어요. 곁에 앉아서 찬찬히 스님을 살피니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런 어른한테 딱히 드릴 말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스님이 꿀을 하나를 밀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됩니까

석공을 보면 마치 바위가 말을 하고 목수를 보면 나무가 간절히 말을 건네듯이 펜과 종이를 대면하다 보면 그들의 말이 들린다. 나를 써 봐요. 그러면 나는 위대한 문장이나 저술로 탈바꿈 할 것이니. 바위는 석공에게 '나를 사랑하고 다듬으면 걸작품이 나올 것이요'라고 귀뜸도 한다. 나를 석불님으로 만들어 주시오. 목수에게는 '나를 치장하여 목불님으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한다. 그렇다고 종이가 다 명작으로 환생하여 서재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바위도 석공의 무수한 손질과 장인의 혼을 불어 넣어야 불단에 올라 장엄한 석불님이 된다. 술한 나무 가운데 모두 목불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인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목불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걸작이나 거룩함이란 찾아 볼 수 없던 종이나 바위, 나무에서 걸작이 되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태어났으니, 그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가. 거룩함은 정경에서 오는 것이다. 거룩함은 열정에서 오고 여백에서 온다.

옛날 마조도일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대본심을 일으킨 마조는 매일 열심히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 가까이 남악회양 선사(南岳回陽禪師)가 찾아와 말을 건넸다. "그대는 좌선을 해서 뭐하려는가?" 마조는 "부처가 되려고 좌선합니다."라고 답했다. 생각해 보면 마조는 좌선 그 자체가 성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서 좌선이라는 일인에 의해서 성불이라는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자 회양 선사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마조가 좌선하고 있는 면전에서 속속 기와를 갈기 시작했다. 마조가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됩니까?(磨磚作鏡)"
이때 회양 선사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그럼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마조는 비로소 '이 사람은 도를 통달한 사람인가보다' 생각하고서 간절한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회양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수레를 타고 갈 때 도중에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타고 가는 수레를 때리겠는가, 아니면 수레를 끌고 가는 소의 엉덩이를 때리겠는가?"
마조는 이 물음에 답할 바를 몰랐다.
여기서 회양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좌불을 배우는가?"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눕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불(佛)은 고정된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머무는 곳이 없으니 취사(取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대가 좌불한다면 곧 그것은 불을 죽이는 것이고, 만약 좌상(坐相)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회양 선사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좌 그 이상의 것이므로 '좌(坐)'라는 형상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부처는 절대 존재이므로 '좌'라는 일정한 형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진리라는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고 형식적으로 취사분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고정됨 없으니 구하면 멀어지고 부처 되겠다 의식해도 부처서 멀어져 무념무상 심리상태가 좌선은 아니다 새 중정 스님 가르침으로 예지 열리길

부처가 되려고 의식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부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상대적인 부처를 죽이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좌라는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언제까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진실한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상(有相)의 부처를 구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자기를 고정적인 실체적 존재로 간주해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생각으로 좌선을 하면 중국에 가서 삼매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냄새가 나서 코를 쳐줄 수 없는 선취(禪臭)가 진동할 열려가 있다. 마조가 빠져있는 개념은 '무념무상(無念無想)'이라는 일종의 심리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좌선이라고 오해하는 점이다.

이번에 선출된 조계종 중정 진제 선사의 큰 가르침을 통해 전 중도들의 정경의 예지가 열리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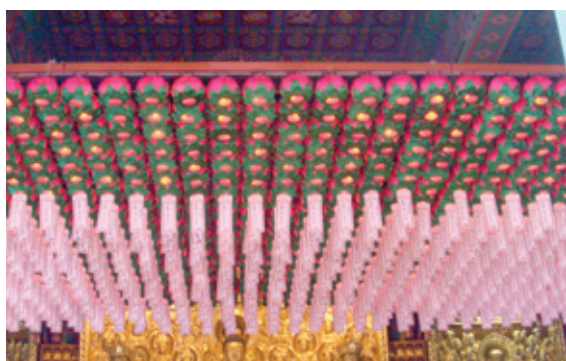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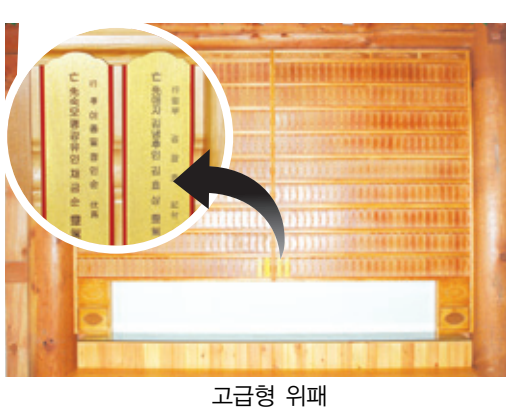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경형 위패



고경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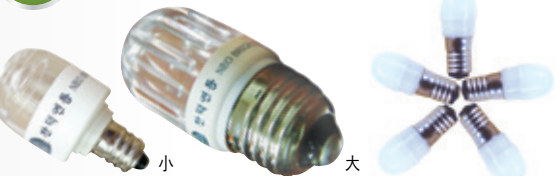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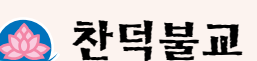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가득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